

광주시 태안화력 노동자 추모집회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를 추모하고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청년 비정규직 해고유공 광주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12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김씨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유가족의 비통한 요구에도 적폐 기득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원청회사인

진상규명위 구성·발전사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 19일 5차 범국민 추모제 참여 결의·촛불행진도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현장을 청소하고 현장 노동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했다며 "중거 훼손을 막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가 특별근로감독관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또 "유가족의 호소로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씨의 동료들이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협을 떠넘기는 사회에서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에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사고의 결면만 다룰 뿐이다.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도 부합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5차 범국민 추모제가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답변해달라"면서 "정부의 답변이 없다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강도높게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이날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5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충장으로 일대를 30여분 간 촛불을 들고 행진하며 추모의 뜻을 표현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노동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슷한 시간대 전국 각지에서 4차 범국민 추모제가 동시에 열렸다.

최남규 기자

빈집 확인 뒤 역대급고 턴 20대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고급주택을 턴 혐의(절도)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암동 한 고급주택 유리창을 궁구로 부수고 침입, 1억원 상당의 현금·귀금속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대출금을 갖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고가의 주택이 밀집된 동네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낮 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준비한 청테이프와 궁구로 창문을 부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전 골목에서 옷을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전동킥보드·버스·택시 등을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에도 주택 절도에 나섰던 사실을 확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여수서 경차가로등 들이받고 화재 3명 경상

12일 오후 3시44분께 여수시 만흥동 엑스포대로 여수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25)씨가 몰던 경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났으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차량에 타고 있던 A씨 등 3명은 화재 직전 대피했으며, 충돌 사고에 따른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순천 주택서 가스중독 증세로 부부 병원이송

12일 오전 10시23분께 순천시 별량면 한 주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이는 A(61)씨와 아내 B(57·여)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A·B씨는 구급헬기 등으로 광주와 목포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감압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층이 주변에 놓인 폐자재가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방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향 친구 살해 후 도주 30대 중국인 검거

중국에서 온 고향친구가 돈을 갖지 않자 흥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42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호텔에서 고향 친구 B(35)씨를 흥기로 우측 어깨 등을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흥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쓰러진 B씨를 호텔 인근에 내려 놓은 뒤 도주했다.

경찰은 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 소재 A씨 부모님 직책 인근에서 잠복 수사 끝에 귀가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2월부터 한국을 4차례 방문했으며 지난해 5월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해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도박 자금을 빌려달라"는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돈을 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끈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스

'국내·외 홍역 유행'

광주시 감염 주의 당부

광주시는 11일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종사자 등 9명이 홍역에 감염됨에 따라 예방접종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 의심환자 발생시 관찰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에 이어 구강 점막 반점과 피부 발진 증상을 보인다.

국내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은 98% 수준에 달하지만 접종시기가 안 된 12개월 미만 영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최근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홍역 감염을 막기 위해 표준 접종 일정인 생후 12~15개월, 만 4~6세 등 총 2차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또 여행 중에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여행 후 홍역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문의해줄 것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찾아 올 경우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관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물속으로 동행 13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열리는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천어맨 손잡기를 즐기고 있다.

'모델서 기다린다' 신임 여경 성희룡 경찰관 해임 처분 적법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회민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장은 2017년 A 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7월 동료 신임 여경 B 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델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18회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B 씨와의 관계에 비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B 씨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B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B 씨가 입을 정신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A 씨와 B 씨는 같은 직장의 선·후배 관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춰 봐도 A 씨와 B 씨의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 씨가 B 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속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에 '모델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라거나 '사랑한다'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B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A 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춘정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